

지역 소식통

김제시청, 회계재정보증보험 가입

김제시 회계관련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시의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재정보증보험의 가입대상자는 회계관계공무원 362명으로 재무관, 분임재무관, 지출원, 출납원등 회계·지출담당 공무원이다. 보증기간은 2017년 5월 29일부터 2018년 5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보증한도액은 재무관 23명은 5000만원, 지출원 및 회계담당자 129명은 3000만원, 그 외 회계관계공무원 210명은 1000만원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보증보험은 회계사고에 대한 대비책 일환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지방회계법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증보험 계약기간 중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신설로 회계관직의 추가임명시 수시추가재정보증도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드림스타트 우수기관 선정

완주군이 드림스타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31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0일 경주에서 열린 '전국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에서 2015년~2016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여 받았다. 사업운영 평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기본구성, 사례관리, 서비스운영, 지원개발과 연계, 홍보, 아동발달영역별 맞춤형통합서비스 등 총 6개 분야, 12개 영역, 32개 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수상으로 완주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2012년, 2014년, 2016년도까지 전북최초 4회 연속 우수기관이라는 명성을 쌓았다.

/완주=이종복 기자

성덕면, 공작목반재배기술 교육진행

김제시 성덕면 선농회원 20여명을 중심으로 한 공작목반 재배기술 교육이 지난 31일 면사무소 북지회관 2층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으로 김제시 공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문운만 강사는 성덕지역의 논토양은 대부분 식양토이어서 밭용화(용배수리 기반조성)를 통한 밭작물 재배지로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공 관련 정부정책기조를 중심으로 밭 대체작물로 콩의 전망이 밝다고 얘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화정저수지가 불법으로 몰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불법을 합법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화정저수지 '특혜 의혹' 논란

완주군-농어촌공사, "불법에 특혜 주어 합법화 하려는 것 아니냐" 지적

완주군 화정저수지가 불법으로 몰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불법을 합법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5월 25일자 10면> 특히 완주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 완주, 임실지사가 '탁상행정' 이 도마 위에 올랐다. 완주군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저수지 불법 관련해, 지난 25일 사업자, 업계 관계자, 군 관계자, 농어촌 공사 관계자 등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방갈로에 다리를 놓으면 허가 해 주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협의를 놓고 불법을 '특혜'를 주어 합법화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완주에 한 건축전문가는 현재 저수

지 안에 불법 사항인 건축물(방갈로)은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 "면서 "이를 무시하고 현재 농어(불법 건축물)진 상황에서 완주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 완주, 임실지사가 허가를 내어 줄 경우 이는 엄연히 '특혜'다"며 "요즘에도 이런 행정이 있나? 허를 내뒀다. 여기에 완주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 완주, 임실지사가 불법을 알고(2년)도 단속을 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붕붕 이 모씨는 "이는 누가보아도 '탁상행정'에 단편을 보여 주는 것이다"면서 "누군가 비호 세력이 있지 않고서 불법을 하려고 이렇게 오랜 세월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를 밟

히기 위해서라도 감사기관과 검찰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불법을 알고 있다. 총칭도 어느 저수지는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 전주, 완주, 임실지사 관계자가 화정 저수지도 다리만 놓으면 허가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세한 것은 팀장과 상의해서 알려 주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불법 시설물을 그대로 놓인 상황에서 허가를 내어 줄 경우 불법이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농어촌공사 전주, 완주, 임실지사 관계자는 "다리를 놓고 허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철거한 상태에서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말로 일축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농협, 사료용 벼 시범재배 파종시연회 개최

쌀 과잉재고 감축 · 조사료 부족상황 해소 추진

농협(회장 김병원)은 지난 31일 김제시 전주김제완주축협 관내 벼 재배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유관기관, 농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료용 벼 시범재배 파종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논에 사료용 벼 재배 확대를 유도하여 쌀 과잉재고를 감축하고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쌀 대체 사료용 벼 재배의 성공적 정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다. 행사는 사료용 벼 시범재배 성공기원 박 터뜨리기, 사료용 벼 재배기술 및 종자, 기계장비 전시, 사료용 벼 직파 재배 시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국내 쌀(정부 양곡)재고량은 226만톤(2017년 4월말 기준)으로 FAO(국제연합식량기구) 권장 적정재고량(80만톤)을 크게 넘어서고 있으며, 향후에도 공급과잉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협은 쌀 과잉재고 해소를 위해 쌀 가공산업 활성화, 소비촉진, 해외 수출추진 및 대체작물 재배확대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효과범위가 크고 빠르며, 지속적인 방안인 논에 사료용 벼 시범재배를 추진하고 있다. 농협의 사료용 벼 시범재배 사업은 올해 5개 지역(당진, 강진, 고창, 김제, 고령)의 30ha의 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무이자자금 100억원 지원과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재배농가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자원봉사자 어울림한마당

봉사자간 유대감 강화 · 사기 진작 위해 진행

완주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모삼중)가 2017 완주군 자원봉사자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 지난 31일 완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어울림한마당은 센터소속의 행복나눔 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 가족봉사단을 비롯해 13개 읍면에서 활동하는 40여개 봉사 단체에서 3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또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박성일 완주군수, 정성모 군의회의장과 군의원, 김훈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장, 이재갑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을 비롯해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행사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 표창과 개회사, 인사말, 축사 순으로 이어졌으며, 개회식을 마친 후에는 명랑운동회, 노래자랑 등을 열어 화합을 다졌다. 한편 완주군 자원봉사자 어울림한마당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봉사자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지난 31일 부시장실에서 김제시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승복 부시장)의 주재로 김제시의회대표, 교육관계자, 학부모 대표, 시민대표, 김제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김제시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규모를 확정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제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관내 거주 학자금 대출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신청자는 68명이었으며, 오늘 심의를 통해 졸업, 대출이자 잔액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4명생 제외된 64명에 대한 230만원의 이자 지원액을 확정하게 됐다. 신청자 중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금(생활비 제외)의 상반기(1~6월) 발생이자(2.5%)를 지원하며, 오는 6월 중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이자지원액을 학자금 대출 본인 상환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농식품 수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김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에서는 김제농식품 수출협의회 정기총회를 지난 31일 농업회사법인 (주)농산에서 개최했다. 김제시 농식품 수출협의회는 김제시 농식품의 수출발전과 상호간의 영리추구를 바탕으로 하는 자조조직으로 회원 상호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수출

판로 확대 모색과 회원들 간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조직된 단체이다. 회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 전반적인 활동계획에 대하여 협의 및 토의를 가지며 회원 상호간의 신뢰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순창이 참 좋다 순창 종합 사무기기

TEL : 063-653-5002
H.P : 010-6633-4070

탐장 이동선 <렌탈전문>